어린이집 개원… 조계사, 새싹불자 터전으로

서울 조계사, 새해 맞아 어린이 · 청소년 포교불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가 자라나는 새싹 불자들을 위한 터전으로 변모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29일 관음전 접견실에서 2018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부주지 원명 스님, 선림원장 남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처음 취임하며 조계사를 편안한 집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어린이 · 장애인 · 노인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역대 주지스님들이 너무나 잘했고, 그 빈틈을 메우겠다고 다짐했다"며 "2018년을 한국불교 중흥 초석으로 다지는 해로 삼고 포교와 전법으로 신행 모범도량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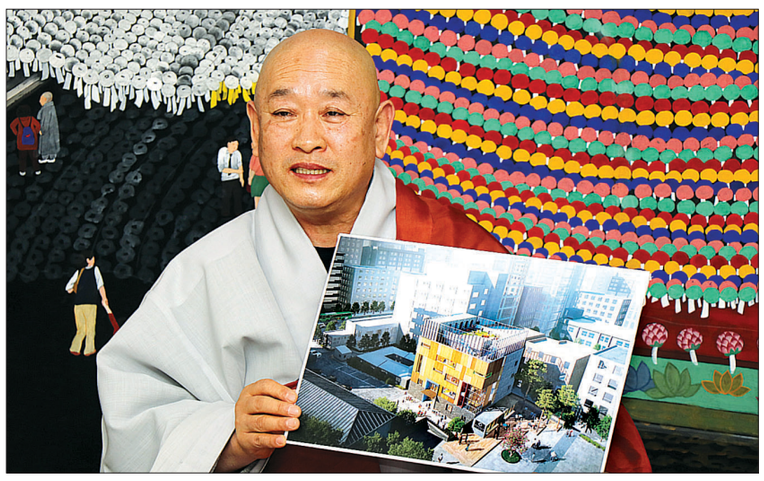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조계사는 크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활성화 △대사회사업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문화축제 개최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 포교 중심도량 위상 강화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다. 먼저 첫 사업은 어린이집 건립불사다. 조계사는 2016년 인근 을유문화사를 매입하고 현재 어린이집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사가 위치한 종로에는 약 3만 명의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계사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조계사 어린이집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1,151㎡규모다. 1층에는 조리실과 영아반, 2층은 유아반, 3층은 교사실과 실내놀이터, 4층과 5층에는 미술과 음악, 영상 등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실, 6층은 옥상 놀이터로 구성된다. 올해 3월 리모델링 공사가 발주되며 4월 착공, 8월 준공된다.

다른 어린이집과 차별점은 밤 10시까지 운영된다는 점이다. 지현 스님은 "종일반이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에 맞지 않아 여러 애로점이 있다는 판단에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올해 8월 준공되는 조계사 어린이집 조감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지상 6층에 10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 가능한 시설로, 새싹 불자 양성에 터전이 될 전망이다.

8월 준공, 지상 6층 규모로
직장인 위해 밤 10시 운영
'아이좋아, V캠페인' 도 전개
실천대상 등 활동가 지원도

이와 함께 어린이 · 청소년법회 활성화를 위한 '아이 좋아, V캠페인' 도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조계사 어린이법회 소속 어린이 · 청소년들이 하반기 열리는 합동수계법회까지 2명의 친구들을 조계사 법회에 나오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2월 25일 오전 10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과 조계사 어린이 · 청소년 불자들이 함께 V를 그리며 캠페인의 문을 연다.

조계사는 향후 어린이 · 청소년이 주체가 된 포교단을 운영하며 어린이 · 청소년 밴드, 사물반, 오케스트라반 등 특성화 교육 동아리 활동도 전개한다. 또 스님과 지도교사가 어린이 · 청소년 상담과 관찰일지를 작성하며 매월 한차례씩 학부모와 아이들이 소통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칭찬합시다' 칭찬 스티커를 만들어 보급하며, 조계사 청년회, 대학생들을 연계한 멘토링도 제공한다.

지현 스님은 "최근 발표된 종교인구 감소 문제는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어린이 포교 중심도량으로 위상을 확립해 한국불교의 미래불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큰 인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어린이 · 청소년에 이어 신도들 전반으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외계층 · 불교활동가 지원 확대

조계사는 종단 대표사찰의 위상에 맞게 대사회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조계사는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낙산어린이집, 창일어린이집을 수탁 ·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련과 탈북대학생 장학금 등 20여 단체에 연간 1억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원심회 법회 및 일자리 나눔터, '일구데이' 채용박람회, 쪽방촌 봉사 등 다양한 대사회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의 선택적 예방접종 비용지원과 실직자 치유상담 지원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법회를 정기적으로 연다. 3월 서울지역 장애인 연합법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장애인 법회를 진행하며, 청각장애인 신행단체인 조계사 원심회를 주축으로 장애인 신행교재도 연구 · 제작한다. 이에 앞서 대웅전 출입과 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조계사 불교자비 실천대상을 신설해 교육과 포교, 사회, 문화,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조계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축제도 열린다.

지현 스님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대변하며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많다. 이들을 격려하고, 또 외국인과 시민들이 조계사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불자와 시민이 소통하는 조계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선출제도 4월 공청회 예정

조계종 선출제도특위 '발전적 선출방법' 주제로

조계종 총무원장선출제도와 관련된 공의를 모을 공청회가 오는 4월 열릴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 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각종 선출제도 검토 후 4월경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특위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관련 논의의 건' 을 통해 타종단 및 타종교, 해외불교의 행정수반 선출방식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이 '율장을 참고로 한 소임자 선출방안' 을 정리했다.

덕문 스님은 "율장에 따르면 현전승가 구성원은 비구로서 문제가 없으면 초하비구도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법계를 근거로 일정 이상의 승랍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일은 율장정신과는 상반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조계종단을 하나의 현전승가로 보기에는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서는 직선제와 간선제, 추대제 등 안을 도출한 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선거제 폐지와 관련해 특위가 맞춰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뜻을 모았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원장스님 의견에 따라가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한 번 더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선거제뿐만 아니라 선출제도서 불거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예방책과 강력한 징계조항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위는 직 · 간선제와 추대제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한 뒤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 선출방법'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키로 했다. 전문위원으로는 윤성식 고려대 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김봉석 변호사가 위촉됐다.

윤호섭 기자

불교지도자들 "인류평화 위한 서원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지도자 하례법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인사를 나누고,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2018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차석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부회장 홍파(관음종) · 편백운(태고종) · 만청 스님(대각종)과 인선 정사(총지종) 등 종단협 소속 대표자들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사부대중은 먼저 부처님전에 연등과 꽃 공양을 올린 뒤 진리의 가르침을 사회에 널리 알릴 것을 다짐하며 3배 했다.


종단협 신년하례에 참석한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배례를 올리며 신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이후 서로 배례하며 새해인사를 나눴다.

이날 회장 설정 스님은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 을 강조한 뒤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다짐하더라도 한 번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 이웃부터 자비의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이 대해 나가자. 조화로운 새 세상이 우리 앞에 환히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불교계 전통문화가 정부 · 지자체 정책에서 홀대 받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역사이자 민족 전통문화다. 전통문화를 종교적 잣대로 판단하는 잘못된 관행과 시각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자 종교간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석부회장 회정 정사와 부회장 홍파 스님 역시 본부사에 충실하면서 공의 세계 구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유기〉 속 주인공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 정토임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오정' 을, 계율을 못 지키고 살기에 '팔계' 를, 능력은 출중하지만 오만해 공한 것을 잊지 말라고 '오공' 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서 "결국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불교계가 이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과 문대림 청와대불자회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국태민안을 위해 불교계가 앞장서주길 요청했다.

이후 종단협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원했다.

윤호섭 기자



혜선스님의 목단화

액운을 없애주고 재운을 부르는 길상화

혜선스님은 출가해서 법화경 사경을 수행하는 중 선몽에 선재동자가 나타나 전해주는 목단꽃을 받고 신비스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가피로 법화경을 후불로 모시고 목단꽃을 그리면서 법화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목단꽃을 받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스님께선 매일 축원을 드리면서 열심히 목단꽃을 신도들을 위해 그려주고 계십니다.


▲ 30호


▲ 20호

주문하신 불자님께 개인 축원을 드리고 맞춤 목단화를 그려 드립니다



요즘은 전국에서 불자님들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 판매 수익금은 전액 불사에 쓰여집니다.

■ 구입처 : 법화선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47-1, 3층)

010-8923-3385. 053)476-3385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8-13-000568-4 (예금주 : 법화선원)
http://blog.naver.com/beophwa3385


◀ 40호